

연중 제 18 주일

기도서 404면 (A해)
 제1독서: 이 사 55, 1-3
 제2독서: 로마 8, 35, 37-39
 복음: 마태 14, 13-21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마태 14, 19).

□ 강론



“가진 바를 나누자”

이 재 후 신부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는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신다.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는 오천명을 먹이기에는 너무 작은 분량이다. 그러나 이 작은 분량이 무한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예수께서 이 작은 분량을 많게 하시어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든지, 또는 감동한 군중이 자신이 몰래 간직했던 음식을 내어놓아 나누어 먹였든지 간에 이 기적은 우리에게 나눔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적을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이웃에게 베풀게 될 때, 예수께서는 그것으로 엄청난게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고, 다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갖는 것’이 적다고 주저하거나 망설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느님께 ‘있는 것’만을 갖고 달려가면 하느님께서 ‘나의 것’을 당신 사업에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늦게 시작한 장마가 지리하게 계속되었다. 서천, 부여 등지에서는 사상 최대의 강우로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교구 내의 북부지방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우리의 힘은 너무 부족하다. 그러나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오천명을 먹이도록 내어놓은 소년처럼, 지금 집과 토지를 잃고 배고파 추위에 떠는 우리의 이웃, 수재민들에게 우리의 작은 정성을 드리자. 이 작은 정성이 모여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 상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을 온전히 내놓으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어 우리가 그 몸과 피를 모시게 함으로써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주셨듯이, 우리가 내놓은 이 보잘 것 없는 ‘작은 것’이 그들에게 따뜻한 느낌을 주도록 해주시리라 믿는다. 이 작은 믿음으로 우리의 가진 바를 나누자. 그러면 주님은 그만큼 채워 주시리라.

이때, 아무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을 것이다.

(노송동 천주교회)



용서하소서!

참으로 엄청난 아픔이다. 먼저 비명에 숨진 무고한 영혼들을 위하여 삼가 머리를 숙인다. 그리고 부모형제와 처자를 잃고, 또 살 집과 생명의 젖줄인 논밭을 찢기운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 7월의 아픔을 사람들은 자연의 횡포니, 수마니 하는 따위의 몇 마디 짧은말로 쉽게 표현한다. 그런데 우리가 몰로 고통을 당하는 시기에 다른 어느 지역에서는 더 위로 시달리는가 하면 추워서 죽을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한다. 어찌보면 자연의 모습이 짓궂어까지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면서 잘났다고 빠기기 좋아하는 인간의 무력함이 엿보이기도 한다. 예졌든 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지 못했기(안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대목에 이르르면 우리 모두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래도 선량하기만한 우리 국민들은 수재를 당한 형제들의 아픔에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코흘리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보여준 나눔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당국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 연중행사처럼 크고 작게 반복되는 이 아픔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동포애와 합심노력을 호소하기에 앞서 정중한 용서를 빌어야 한다. 도대체 그토록 자랑하는, 몇 년씩 세계를 제패하는 기능을 뽐내며 숨쉴 때는 무엇이든, 88올림픽의 의미는 무엇이란 말인가? 대답 좀 해라.

문득 물고문에 대한 징벌인가 하는 두려움과 더불어 어느 작가의 간절한 소망이 가슴을 때린다. —“끓어오르는 통곡을 삼키며 무릎을 꿇고 하늘에 비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소서.”

숲 정 이 산책



수재를 당한 네 아우는 어디에 있느냐?

한 상 갑

문득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큰비가 오면 천주천에 물결을 나갔었습니다. 흙탕물을 일으키며 치닫는 물살의 장관과 하늘을 가르는 무지개를 보며 흥분에 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구조대를 기다리는 이재민들과, 위아래에서 잡아주고 매달리는 구조의 모습을 보며 영화를 볼 때처럼 스틸을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는 이번 사태가 너무나 엄숙하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공지사항을 전하다가,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따뜻한 아랫목에서 삶은 하지갑자를 조금씩 먹어 먹는 맛이 그만입니다"라고 했을 때 나이든 교형자매들은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철이 조금은 든 지금, 아니 오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수재로 고통을 당하는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모읍시다"라고 말했을 때, 신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비가 축축히 내리는 날, 식구들끼리 둘러앉아 간식으로 드는 감자맛은 낭만까지 있어 멋을 부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밀어닥친 폭우에 사랑하는 부모 처자나 형제들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그들의 고통을 알겠습니까? 비록 움막이지만 식구들의 숨결이 머물렀던 보금자리가

찌그러지고, 맘홀려 가꾼 논밭이 자갈밭으로 바뀌었을 때의 심정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옛부터 내 고향이 남의 염병보다 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들의 아픔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우리의 것으로 하여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고통은 나눌 수록 그 무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직장에서, 동네에서, 학교에서 성금아닌 성금을 거두어 가는 꼴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짜증도 나지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께 더 큰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다른이들보다 더 많이 나누어야 합니다. 먼저 기도로 나눔시다. 그리고 물질로도 나눔시다. 마침 우리 교구에서는 수재민들과 사랑을 나누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싶습니다. —"수재를 당한 네 아우는 어디에 있느냐?" 무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무관심한다면, "너는 내가 수재를 당했을 때 모른척 했으니, 나도 너를 모르겠노라"고 하실 것입니다.

(동산분당 사목회장)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형제들과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하겠습니다. 교구에서는 이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수재의연금 및 물품을 접수합니다. 각 분당에서 실시하는 주일 특별 2차헌금에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자치교구설정 50주년 헌금 상향

1. 분담금 추가 완납분당

② 무주 1,747,900원

2. 7월 분담분당 (15일~30일)

수 류-18만원 장 계-13만원
연지동-77만원 함 열-100만원
황 등-100만원

3. 피정의 집 비품

신일군 신경외과-100만원
엄익도 소아과-100만원
문산부인과-20만원
안드레아 무궁화회-20만원
해의교포 신자-300만원
장윤선 가족회-160만원
M·E 가족회-150만원

※ 친호 피정의 집 축성일은 8월 31일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헌금을 접수합니다.

4. 성직자 묘역 조성

강윤식(분도) 신부 유족-10만원
※ 성직자 묘역 조성 완결은 추석명절로 예정하오니 계속 접수바랍니다.

5. 50주년 기념 T셔츠 공소 기증

노송-50, 상관-75, 고창-50, 신태인-50, 임실-50, 부안-50, 원평-30, 수류-80, 무주-100, 진안-150, 장계-100, 장수-80, 고산-80, 여산-80, 금마-50, 황등-50, 용안-50, 화산-50, 동해원-50, 신암-50, 익산-50, 상지원-50, 무지개-20, 순창-서울신자, 임실-서울신자

※ 공소 어린이들에게 기증해준 단계 (꾸르실로 300개, 성령봉사회 100개)
개인 : (이신경외과 100, 최푸리스카 100, 정안젤라·정율리아·심오틸리아 100, 채벨라멧다 200)

그리고 그의 분들께서 600벌을 기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계-1,440벌

특강 : 정신과학 세미나

주제 : 고도의 정신 및 두뇌 활용법
효과 : 기억법 · 집중력 · 공부법 · 신앙심화 · 목표성취법 · 상대교정법 · 타인 컨트롤 등
때 : 7월 29일(수) · 8월 2일(일) 양일간
 오후 2시 · 7시 30분(2회)
곳 : 전주 가톨릭센터 대강당
연사 : 박 銀 星(요한) 원장
참가비 : 1,000원

"응변을 배우시다 발표력을 기르시다"

방학 특강반 모집

호남응변학원(도교육위원회 앞)
새호남 응변 미술학원(전주역 앞)
호자응변학원(삼천동 쌍용APT 앞)
원장 유병 철(베드로) 원감 박경 애(안젤라)
☎ ③ 3 2 8 4 · ④ 3 9 4 8 (야간) ⑤ 4 7 6 6

교 구 소 식

1. 젊은이 형제의 모임 : 2일 오후 4시30분, 장소-이리 글라라 봉쇄수녀원
2.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3일 오후 8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3. 사회복지후원회 월례미사 : 4일 오전 10시, 장소-사회복지회관
4. M·B·W 현대복음선교 목상회(형제애와 가난) : 6일 오전 10시~8일 오후 5시
장소-가톨릭센터, 참가비-22,000원, 접수-5일(접수순 40명)
5. 성모의 푸른군대 피정 : 6일(목) 오전 10시, 장소-덕진천주교회
6. 마리아 봉사수녀회 피정 : 9일 오후 2시~6시, 장소-청주시 봉명동 176-10
(63-8591), 주제-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마리아
강사-최창무 신부님(서울 가톨릭대학 교수)
7. 十 주여, 맘자에게 영원한 평화의 안식을 주소서
한봉섭 신부 부친 한동철(바르나바)께서 7월 17일 오전 9시30분 선종
박중신 신부 모친 김메테사께서 7월 28일 오전 1시 선종
※ 세상을 떠나신 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성직자·수도자·평신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봉섭 신부·박중신 신부 드림-
8. 교구 사제 인사이동 : 부임일자-8월 1일까지

성 명	제시된 곳	가시는 곳
문 규 현 신부	아일랜드 연수	미국 메리놀신학교 연수
강 덕 창 신부	서 학 동	휴 양
김 배 윤 신부	필리핀 E. A. P. I	송천 동 주임
이 순 성 신부	벨기에 유학	서 학 동 주임

9. 축! 영명 : 성 도미니교-강인찬 신부님 축하합니다

잡 관!

☆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M·B·W)-현대 복음선교 코스-

교회가 추구하는 공동선은 하느님의 가치에 근거를 둔다. 즉 교회는 공동선을 위하여 하느님의 가치를 실천, 실현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하느님의 가치들은 복음 안에서 제시된다. 그 복음이 제시하는 정신은 「가난」이다. 진정한 가난함이 곧 복음의 정신인 것이다. 교회는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복음 정신에 살고, 실현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 가난함이 복음정신이라면 교회는 가난해야 된다. 어떻게 가난할 것인가? 진정한 형제적 교회 공동체-나눌 수 있는 마음이 곧 가난함이고, 사실 우리가 나눌 수 없다는 것은 곧 우리가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복음 안에 제시되는 가난함이 무엇인가. 우리는 왜 나누어야 하며, 진정한 나눔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M·B·W)는 이를 정확히 명시하며 목상케 한다.

공동체 목상회의 12가지 목상 코스 중 한국에 소개된 그 세번째 목상은 「현재 복음선교」 코스이다. 이 목상회가 교구에서 두번째로 실시된다. 오는 8월6일부터 8일까지(2박3일) 전주 가톨릭센터에서 개최되는 이 목상코스는 그리스도 신앙인으로써 참다운 교회정신인 「비움」 「나눔」 「가난함」의 의미를 명확히 목상케 한다.

참으로 교회정신, 참다운 그리스도 신앙인으로 살고 싶은 신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목상회에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물과 산으로, 육신의 피서를 위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피서를 위한 목상시간을 갖는 것도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요심이 (730) 김병오



□ 1분 명상

사랑은
온갖 허물을
덮어준다.

-잠언 10, 12

명동피부과의원

신도사무기상사
(주)신도리코 전주특약점

복사기·팩시밀리·마스타
인쇄기·윤전등사기·각종
사무기기 및 소모품일체

☎ 6-9666·84-3678
오 중 원(아오스딩)
이 정 윤(안젤라)

한 요 가 원

일반요가·단식지도
개인시술

이 순 웅(아오스딩)
노 영 학

전주시 중앙동 2가 3-1
(전주백화점 뒷골목)
(0652) 83-4041

전북의료조합 지정

김 생 기
산부인과

전문의 김 바오로
신 실비아

전주 ☎ 6-6077
(조흥은행앞 윤의과 내)

즐겁게 영어를 배우시다

라보(LABO) 회원모집

연구원 : 박 경 애(안젤라)

사단법인 한국 라보 박경애 파티장
도교육위원회 앞 호남운법학원 내

☎ 3-3284

북 전주지구 본당소식

(중앙)

사제관 5-1713 주임신부 심 민 호
사무실 5-1711 보좌신부 윤 양 호
수·유 5-1712 사목회장 엄 의 도

- 7. 청년연합회 단합회: 8일~9일
- 8. 클라라회 단합회: 9일 공식미사후 출발, 장소-구이
- 9. 모임안내: 애령회-오늘 공식미사 후 동명회-안나회-차주 공식미사 후
- 10. 본당청소: 바다의 별, 수녀님 방문: 자비의 모후
- 11. 금주전례: 해설-한기철, 독서-①김준권 ②김순오
- 차주전례: 해설-손택규, 독서-①조용기 ②김진순

□ 지난주 봉헌금: 252,050원 (내동 18,850원)
교무금: 255,000원 나눔의날 헌금: 32,730원

(순천등) 사제관 74-1004 주임신부 김 태 윤
사무회장 소 병 율

- 1. 모임: 사목회일원, 각 단회장 합동모임-공식미사후 성심부녀회-매월 첫금요일 11시
까리스타회-매월 첫화요일 오후 2시
- 2. 미사시간 안내 주일: 공식미사-10시30분, 저녁미사-오후 8시, 토요일: 특전미사-오후 8시, 어린이미사-오후 4시, 평일: 저녁미사-오후 8시 (월·목 제외), 월요일: 새벽미사-6시, 목요일: 어머니미사-오전 10시, ※ 교백성사: 미사시작 15분전
- 3. 예비자교리: 사무실에서 접수합니다
- 4. 각 구역장·방장 모임: 매월 셋째주 일요일
- 5. 은인께 감사: 장두성-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상(1만원), 정혜순-성수대 2점(20만원)
- 6. 구역 방문미사: 전당리-6일, 미산리-13일 오후 9시
- 7. 금주 본당청소: 매진회(8일 오후 3시)
- 지난주 봉헌금: 208,930원 교무금: 50,000원

(금암)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오 힘 택
사무부 소 완 영
수녀원 76-0961

(순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 중 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박 해 근
수녀원 3-9567

- 1. 성당내부공사 종결: 미사후 의자 옮기니 협력합니다. 정화사업비 납입자-20~26일(1주간) 정효숙 외 12명-970,000원, 납입해 주신분께 감사
- 2. 성모회, 푸른숲: 공식미사 후
- 3. 성령기도회: 매주(화) 오후 9시~10시,
- 4. 50주년 특별미사: 일시-수·목·금 저녁 9시
- 5. 사목회-4일(저녁 9시), 자모회-(4일로 변경, 오전 10시, 특강-에어로빅)
- 6. 구역모임: 5·6·7일 숲머리 참조
- 7. 대학부 하계 MT: 10일~11일, 장소-진안 죽도 집결장소-시간-성당에서 오전 9시30분
- 8. 초등부 교백성사: 8일 오후 5시
- 9. 성모성년 묵주신공 100만단 바치는 운동 기간: 87. 8. 15~88. 8. 15, 숲머리 참조
- 10. 울뜨레아: 다음주 공식미사 후, 장소-야외에서
- 11. 수재민을 위한 2차헌금이 다음주에 있습니다
- 12. 미사안내: 상아보탑
- 13. 금주 본당청소: 화-자비의 모후, 토-상아보탑
- 14. 금주전례: 해설-김경주, 독서-기도-양승진·홍신욱
차주전례: 해설-김경주, 독서-기도-강삼·김정분
봉헌기도-오정중·신덕순
- 지난주 봉헌금: 391,370원 교무금: 468,800원

(인후동) 사제관 74-1929 주임신부 서 용 목
사무실 75-6389 사목회장 김 병 문
수녀원 75-6389

- 1. 오늘의 모임: 사목회 월례회-공식미사 후
- 2. 금주의 모임: 구역장님 월례회-6일 어머니미사 후
- 3. 예비자교리: 5일부터 오전 10시-박수녀님반, 오후 8시-신부님반, 환경에 한분씩 예비자 인도바람
- 4. 성전건축(신축) 위원회 구성: 신취위원장-양기춘, 부위원장-이승백·함권술, 재정-총무-채수원·이진호, 건축감리-김환창·정상영, 전기감리-최기종·김광준, 설비감리-송동석
- 5. 교사들의 단합대회: 3일~5일(2박3일)
- 6. 복사단 단합대회: 7일 오전 9시
- 7.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김요한 비안네 수녀님
- 8. 이달의 청소: 매개의 모후-매주 월요일
- 9. 금주전례: 해설-진길자, 독서-기도-허재학·이양자
봉헌-이순영·박정선, 안내-김병선·최윤선
차주전례: 해설-남복희, 독서-기도-류재웅·박영희
봉헌-김진영·정순자, 안내-채수원·이완
- 지난주 봉헌금: 436,614원

- 1. 중·고등부 산간학교: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도자님들과 도움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2. 병자방문: 4일(화) 오후 병자교우가 케신 가정은 오늘까지 연락주세요
- 3. 성체강복: 7일(금) 오후 7시
- 4. 청년성가대 하기사련회: 오늘까지(죽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 5. 예비자 입교에 모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반) 교리시간-주보 4면 상담 및 성당 게시관 참조
- 6. 모임: 사목회-오늘 공식미사 후 자모회-오늘 오후 3시 다미안회-5일(수) 오후 어머니성가대 정기총회-6일(목) 오전 10시 성심부녀회-7일(금) 어머니미사 후 오월의 마돈나 피미어-다음주일 오후 2시
- 7. 초·중·고 지도자 단합대회: 5일(수)~7일(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8. 본당버스 이용안내: 유익한 방학으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문의-사무실)
- 지난주 봉헌금: 1,118,280원 교무금:

- ☆ 수재민돕기 특별헌금: 오늘 미사중 실시
- 1. 사목회: 공식미사 후(단합대회)
- 2. 차주는 친교주간: 반장님 회의-공식미사 후
- 3. 꾸러실로 울뜨레아: 6일 저녁미사 후
- 4. 성시간: 6일 저녁미사 후 ※ 전신자 꼭 참여하세요
- 5. 애령회 운영위원 단합대회: 5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출발, 장소-고산철
- 6. 성가연습: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 7. 신축헌금: 50주년 분담금: 헌금납부에 협조바랍니다
- 8. 감사(신축헌금): 황인용-1만원, 이재자-2만원, 김재열-5만원
- 9. 금주복사: 정문영·장수택 차주: 나인구·김익창
- 10. 금주봉헌: 박완기 부부 차주: 임정환 부부
- 지난주 봉헌금: 671,650원 교무금: 583,000원 신축헌금: 80,000원

(덕진)

사제관 72-6107 주임신부 김 흥 희
사무실 3-2182 보좌신부 최 상 법
수·유 72-1222 사목회장 김 낙 현

- 1. 사목회 부회장 보선: 김계영씨 선임 축하드리며 고귀한 봉사들 기원합니다
- 2. 오늘의 모임·행사
요셉회 월례회-공식미사 후(2층 회의실)
진복회 친목야유회-공식미사 후(고산철)
- 3. 까리따스 자모회: 4일 오후 2시
성심부녀회 월례회: 5일 오전 10시
반회장 모임: 5일 오전 11시30분
- 4. 신자 1일피정(푸른군대 주관): 6일 오전 10시
- 5. 사목회 친목대회: 8일~10일 (부부동반, 8일 12시 출발)
- 6. 청년연합회 하기사련대회: 8~9일 '지리산 심원마을'
- 7. 신축헌금 미납하신분 끝까지 고운 정성 바랍니다
- 8. 금주 본당청소: 자비의 모후-8일 오후 2시
- 지난주 봉헌금: 584,290원 교무금: 740,000원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권 이 목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한 상 갑

- ☆ 감사하는 마음, 기원하는 마음, 속죄하는 마음을 수녀원 건립에 모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총신입액-7,250,000원(89세대) 납부액-3,785,000원, 미진입세대-205세대 ※ 초남이 참조
- 1. 성령기도회: 수요일 8시30분, 미사-9시30분
- 2. 새 예비자반 입교식: 6일 8시30분
- 3. 예비자교리: 성인-목 8시30분, 중·고생-토 6시30분, 주부반-금 오전 9시30분
- 4. 유아세례식: 5일 수요일 미사중에, 사무실에 신청
- 5. 수요나눔잔치: 5일, 동3구역
- 6. 주일학교 교리방학: 1일~9일 5일, 미사-4시